

나오는 대로 자기 안에다 놓고 행하면 그대로예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관하는데도 왜 안됩니까? 나는 관하는데도 안됩니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 따로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재주를 부리는 짓을 하니 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말이예요.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서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바로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 버리지만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이렇게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묵석이 되는 것이고 또는 발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바로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자꾸 넓어져서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공부 목적은 필요할 것 같은데...

문 스님께서는 이 공부를 해 가면서 잘해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다 놓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놓으면서도 나름대로 목적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일체를 맡겨 놓고 관하여 보는 그 수행에 있어서 어떤 대목에서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라고 하였고 또 한편으로는 그 관하는 것을 몸부림치듯이 하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르침 주십시오.

답 욕심이 있고 없고 간에 자기 분수대로 자기가 능력대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는 자기의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하고 덜하고 없겠고, 지금 자기 능력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능력대로 살고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살고 있으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 자기한테 되놓는 겁니다. 현재 자기가 과거 자기한테 그냥 다 놓아야, 현재 자기와 과거 자기가 둘이 아니게 바로 삼심(三心)이 일심(一心)으로 공(空)했으니까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고 가는 거 자기한테다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냥 하고 있는 자체, 자기가 공했으니까, 주인공이니까 그대로 그대로 놓고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그대로 ‘내가, 네놈이 하는 거니까 너만이 해결할 수가 있고, 너만이 잘못된 거를 다시 바꿀 수가 있고, 너만이 건강하게 이끌 수가 있고, 너만이 회복하게 이끌어 갈 수가 있다.’ 안 그렇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십시오.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고, 자기가 회복을 도모해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자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주인공을 압입하게 보진 마십시오, 표방적인 자기니까요.

그리고 또 관하는 것에 대해서 물었는데, 아이, 생각해 보세요, 글썽, 몸부림 안 치게 생겼나. ‘네

놈으로 인해서, 네놈으로 해서 이게 전부 저질러진 일인데 네놈이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네놈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어떻게 겁니까? 그리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 보세요. 뭐 뭘 놔서 거기 개재하는 게 아니니깐요. 과거에도 그놈이 살았고 현재에도 그놈이 지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놔, 그놈이 지금 모두 하고 가는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칠 때 부처님더러 요놈 조놈 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제놈이 한 거니까 제놈한테다가 모든 걸 맡겨라!’ 요거 자업부덕 해야만이 정말 신성한, 청정한 부처가 나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도 안 해 놓고 밥을 먹어서 배부르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다 찢어서 밥을 해서 다 해 놓고 숟가락으로 떠먹을 때, 떠먹는 과정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떠먹을 때 맛을 알죠. 이런 해 놓지도 않고 먹으려고만 한다면 어찌 그게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살아생전에 어차피 이 세상에 나온 것을 한번 선의 칼을 번 거와 같이 생각하고 절대로 그냥 끼울 수는 없다고 모두 생각하십시오. 그때서 몸부림 치면서 ‘내가 그렇게 진화시켜서 이렇게 인간으로도 형성시킨 거는 감사하지만 전부 일을 저질러서 이렇게 살게 만들어 놓은 것도 너고 뭘주머니에서 한 발짝이라도 나가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선 그냥 그저 제놈한테다 제가 한 일 다 놓으세요. 그런데 안 놔진다고 그러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어쩌나 저쩌나 하고 안 놔진다고 그러죠? 지난날에도 내가 그런 소릴 들었는데 안 놔지는 게 뭐 있습니까? 그대로 하는 거지, 그대로 생각 없이 그냥 딱치는 대로 그대로 해 나가라는 거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 이거 따지고 살람니까? 회답을 아주 말끔하게 씻어지게 하진 않았지만 공부한 것도 말끔히 씻어져서 공부가 된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저 잘 그렇게 해 보신다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관심과 사랑도 착인지요?

문 저희들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늘 가족이나 회사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아껴야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착이라는 것과 다소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될 대로 되

라는 식으로 따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더욱 잘 알고 있습니다만 관심과 사랑도 착인지 그것에 대해서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글썽, 자식을 때문에 안달을 하든 또는 사업 때문에 안달을 하든, 정치 때문에 안달을 하든 그걸 자기가 왜 걱정을 해요? 그렇게 안달하고 사는 것이 바로 주인공 놔서 하는 거라니까요. 어때요? 누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나? 딱치면 딱치는 대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는 당연하겠지요. 그러나 이 주인공을 밟고 하는 사람들은 열 번 떨어 한 서너 번밖에 안 떨어거든요.

그대로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괜히 끼어들어서 주인공 따로 또 두고 그렇니까, 그림 자기 따로 있고 주인공 따로 있는 게 되잖아요. ‘자기가 하는 거 그대로 습이 돼서 이렇게 뛰는구나!’ 이거 주인공한테 다 놓지 말고 이렇게 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있고 뛰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그냥 주인공이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애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제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문 선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입니다. 다른 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의식이 그렇지만 제사 상도 많이 장만을 해서 지내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제사 지내는 도리에 대해서 설하여 주십시오.

답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스님들이 절에서 보름 이렇게 차려 놓으면 스님들이 어느 만큼 차려 놔다는 걸 영령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영령들이 들어와서 뭐부터 보느냐 하면 스님들 마음부터 보거든요. 마음부터 읽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상 차려 놓은 거하고, 돈 얼마 가져온 거하고, 돈 얼마 놓은 거 그것만 알고 있다면 거기 들어와서 그렇게만 알겠죠. 뭐, 영명(靈明)하죠.

그러나 이 마음 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탁 소리는 우주 법계까지 들립니다. 그래서 문이 탁 열렸으니깐 상을 안 차려 놔어도 그렇고 차려 놔어도 그렇죠. 모든 게 내 거 아님이 없고 차려 놔도 버릴 게 없는데 아니, 그 영령들이 그 스님들의 마음에 탁 가서 하나가 됐는데 뭐를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대로 거기 한테 할 처져도 두드려지지 않고 자동적으로 풀려서 제도가 돼도 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 지낼 때, 여기서 천도제를 지낼 때 물건을 많이 사다가 상에 온통 쌓아 놓고 지나야만 잘 지내 주는 걸로 아니 노릇을 어떡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사면, ‘아이, 물건도 안 사는데 뭐 돈 이것만 해도 되고 안 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모습을, 항상 얘기하듯이 일차적으로 그렇게 독사의 무명을 타고났거나 또는 어떠한 짐승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매고 있는 그런 지옥 고통 받았을 때, 이 공부 하면서 그것을 면해 주기를 바라고 모든 것을 합니다.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산 대로 지은 대로 콩나고 팥 나듯이,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모습을 쓰고 나오는 것이 지옥고입니다. 오간지옥고니 하는 그 오간지옥이란 것은 땅속에서 파먹고 땅속에서 바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오간지옥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고에서 벗어나려면 단 하나의 그 마음, 즉 영령을 탁 건너서 내 마음과 둘이 아

니게 해 놓는다면 금세 제도가 되는 거죠. 인간이 된 거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천도제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내게 되는데 어머니의 아버지의 형제의 그 무명을 벗기기 위해서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지내는가 하면, 한 발자국도 떼어 놓지 못하고 업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건너려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령들의 의식은 체가 없습니다. 체가 없기 때문에 열도 되고 백도 되고 스물도 되고 이렇습니다. 들어가서서 천도제를 했으면 아이, 제사(祭禮)도 안 지내야지 왜 지내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 된 도리죠. 잘됐든 못됐든 자식이 된 도리예요. 묵은 빛 같아야죠, 은혜를, 자기가 은혜를 못 받았던 자기 대에서 또 자기 은혜를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주. 그러나 허명(虛名)하게 떠남까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것도 여기 상을 차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뜻있게 해서 이 세상의 중생들을 다 먹이고도 딱 한 그릇이 되나도록 해라 이런 겁니다. 물과 초, 향 그거면 죽까지 뭐가 더 필요하냐! 모든 빚방울이 바다로 들어간들 빚방울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다의 물이라고 하지, 수만 개의 영령들을 한마음에다 집어넣어도 두드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하면 더 집안이 깨끗하고 더 청정합니다.

천도를 스님들한테 청하되 무엇을 많이 차려 놓는 걸 바라지 마십시오. 제사 지낼 때 찹쌀가루를 해서 풍그렇게 그냥 부쳐서 아홉 조각 아니면 일곱 조각, 일곱 조각 아니면 세 조각 이렇게 해서 놓고, 초 향 물 이렇게만 해 놓고 지내신다면 그것으로써 족합니다. 환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물 먹고 떡 먹고,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렇게 하는 의식들은 벌써 그건 아주 하의 중생들의 애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조상들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떡, 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 의식을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놓고 마음속으로 예배를 올리면, 그리고 절 삼장제(三頂禮)를 할 때에, 맨 끄트머리에 모든 것을 한데 모아서 내 한마음 주인공에 모든 걸 맡겨 놓고 일어났다면 아주 그것이 극히 좋은 일입니다.

예전에 외국에서 천도를 시켜 달라고 그러세요, 초하고 물하고 향 하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라도 되는데 그거라도 방편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저녁에 틀림없이 나타나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초 향 물 영령들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내 주고 다녔어요. 그 뭐 다니면서 목탁 들고 다녀요, 무슨 썰 들고 다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 있을 때 한국에서 천도해 달라고 보내도 ‘알았다’고, 그게 천도지 뭐 다른 건가요? 내 마음이면, 이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아주 작다면 작고 없다면 없고, 있다면 이 삼천대천세계를 싸고도 남는 겁니다.

“ 구정물이 들어오면 새 물로 바꿔 쓰고
맛없는 게 들어오면 맛있는 걸로 바꿔 먹으세요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

이게 자유자재입니다

것도 또 사업을 위해서 뛰는 것도 그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주인공 놔서 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주인공 놔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주인공, 이렇게 지금 하고 가는 일, 너만이 해결할 수 있고 잘 이끌어갈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가 되놓는 것은 자기더러 자기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나 현재 자기를 주인공하고 들로 보질 말아요. 들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뛰는데, 주인공한테 이렇게 맡기지 않고 나는 뛰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공이 그렇게 뛰고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몸뚱이는 주인공 시자니까, 마음의 시자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몸뚱이와 생명과 셋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인공이라고 했으니까 합쳐서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해서 나는 착이 있고 이렇게 놓지 못하고 한다고 생각할 말고, 그대로 주인공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냥 시인하고 넘어가라 이 소리에요. 그러면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들로 볼 것도 없고요.

인비록 人秘錄
죽어서 가는 길

"놀랍게도 사람의 사후세계란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모습과도 달랐다"

해광 하순천 저음/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372쪽/15,000원

해광 하순천 관법명인이 밝히는 하늘도의 기도와 수도의 과정, 사후세계의 비밀, 전생과 현생, 신의 세계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에 대한 명쾌한 해답, 책으로 출간되다!

1부 신도神道を 뒀다
하늘의 도를 만나 저자 자신이 직접 체험해 온 세계, 저자가 하늘도의 세계에 입문해 성장해가는 과정, 그 과정중 증거인이 되어 증거하게 된 하늘 일사에 대한 생생한 기록.

2부 죽어서 가는 길
사후세계의 비밀, 사람의 사후세계의 세 가지 모습, 당시의 선택은 어느 방향으로...?

3부 전생과 현생
저자 자신이 직접 본 자신의 전생, 그리고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자신을 뒤엎은 업과 살과 가미에 대한 진정한 통찰과 깨달음

4부 내가 본 신의 세계
신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해답들이 저자 자신의 체험, 기도, 수도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제시 되어 있다.

문의 : 도서출판 대도대한 www.dblog.co.kr
전화 : 02)575-5162

눈만 보면 압니다
“관상과 기 명상으로 앞날을 밝힌다”

귀의 삼보하우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그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린세상이 될 것이다. 스님은 지나온 세상과 또한 미래에 전개되는 앞날의 일을 밝힌다. 사람의 운명 속에는 행운과 액운이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운명을 사전에 알고 액운을 막고 가야 하는 것이다. 고해라고 불리는 이 풍진 세상에서 온갖 고통을 시달리는 가없는 중생들을 위해 상순이 기도와 제를 올리고 법시술로 중생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번뇌에 의하여 업을 일으키고 업에 의하여 고통을 부른다. 번뇌와 업과 고통의 이 세가지는 같이 굴러서 한이 없고 끝이 없으니 이것을 가리켜서 윤회라 한다.

- ◆ **궁을 해도 소용없고 이곳저곳 어느곳에 가서 짐을 봐도 답답하고 시원치 않는 분**
- ◆ **집안에 우환이 끈이지 않고 부부자식간에 원진이 끼여 고통속에서 사시는 분**
- ◆ **집터나 가게터에 재수가 안되고 이사매매가 막혀 궁금하신 분**
- ◆ **평생 제복과 관음이 없어 본인의 관상과 사주를 알고 싶으신 분**

석가모니부처님도 인연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했답니다. 아직 인연이 닿지않는 분을 오셔서 모든 업장 다 소멸하시고 소원성취는 물론 무량공덕의 큰 힘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중생들의 앞일을 스님이 직접 상명해 드립니다.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한울리 산 171번지
백련사 성진 합장 031)673-1087
남·여 행자승 모집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 의 윤량환장은 수십년 동안 퇴행성관절염·류마티스·신경통·오십견·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어깨에 통증이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픈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사과 광고

- **사찰명 : 보림정사**
- **법 명 : 성원**
- **주 소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부흥리 669**
- **사찰명 : 묘관사**
- **법 명 : 대경**
- **주 소 : 강원 영월군 하동면 666**

위 두스님은 2007년 1월 31일 현대불교신문 탈종공고 대표자 스님의 착오로 인하여 본인 의중이 잘못 전달되어 탈종되었으므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한불교 삼론종 총무원장 법하